

약초

야쿠시마 섬의 아열대 토양에는 약초가 무성해서 이 섬에 ‘약의 섬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. (‘야쿠’는 일본어로 한자 ‘약’(藥)을 뜻하기도 한다)

야쿠시마 섬에서는 옛날부터 울금의 일종인 봉술(*Curcuma zedoaria*)을 재배했으며, 에도 시대(1603~1867)의 문서인 ‘구스가와 문서’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. 봉술의 뿌리는 위장 장애에 효과가 있는 한약의 일종인 게이메이가신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 게이메이가신산은 구스가와의 공장에서 제조되어 일본 전국으로 출하되는데, 이 공장에서는 이 약의 제조 공정을 소개하는 30~50 분의 투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

약초는 또한 섬 주민들의 일상적인 식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. 청미래덩굴(*Smilax china*)의 잎으로 감싼 쑥 맛 경단인 ‘가카란경단’은 야쿠시마 섬에서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. ‘가카란’은 청미래덩굴을 가리키는 지역 말이지만, 병에 ‘걸리지 않는다’(가카라나이)는 일본어 말놀이에서 지역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의사를 멀리한다고 말합니다. 그 외에 야쿠시마 섬에서 먹고 있는 약용 식물로는 스이젠지나(*Gynura crepioides*), 된장국에 넣을 수 있는 갯기름나물(*Peucedanum japonicum* Thunb. var. *japonicum*), 그리고 인기 있는 허브티의 재료인 월도(*Alpinia zerumbet*) 등이 있습니다.